

# “새로운 광주시대” 민선 8기 광주 인수위 출범

강기정 “실사구시 현장 전문가 20명으로 구성”

현안대책 임선숙 부위원장 · 국비 대응 TF 김광진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의 민선8기 시정 밀그림을 그릴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가 7일 오전 광주 도시공사에서 출범식을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은 현관식, 임명장 수여, 주요 현황보고 순으로 이뤄졌다.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 김준하 (GIST 교수) 위원장과 임선숙(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부위원장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4년간 광주시정 운영의 밀그림을 그릴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

위는 ▲총괄분과 ▲미래주도 산업·창업·경제 분과는 이경주 전 전남대 링크플러스사업단 본부장과 노지현 부자마을 대표(전 청년상인네트워크 부대표)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온종일 돌봄·교육·건강 분과는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등 3명, 회복 탄력 도시·안전·교통 ▲일상관광·문화·예술·체육 ▲공공혁신 ESG 분과와 당선인 직속 ▲현안대책 TF ▲국비대응 TF로 구성됐다.

현안대책 TF는 임선숙 부위원장이, 국비대응 TF는 김광진 전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전 국회의원)이 각각 맡고, 총괄분과는 황철호 한전 ESG위원회 위원(전 국제기후환경센터 탄소중립연구단장)과 강현선 전

서울시 비서관, 미래주도 산업·창업·경제 분과는 이경주 전 전남대 링크플러스사업단 본부장과 노지현 부자마을 대표(전 청년상인네트워크 부대표)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온종일 돌봄·교육·건강 분과는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등 3명, 회복 탄력 도시·안전·교통 ▲일상관광·문화·예술·체육 ▲공공혁신 ESG 분과와 당선인 직속 ▲현안대책 TF ▲국비대응 TF로 구성됐다.

강기정 당선인은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은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현장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당당하고 빠른 시정 변화발전에 부응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강 당선인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정부 대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국회와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광주와 전남·북 초광역 협력과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영·호남 지자체와의 균형 정책 방안 등에 대해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몇 불여 “광주 시민들의 에너지를 모아내고 광주를 기회의 도시, 역동적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김준하 위원장은 “20명의 인수위원과 함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자

김영록 지사 인수위 대신 ‘비전·공약위’ 구성

도정비전 마련·공약 실천방안 점검…4개 분과 30여명 참여

위원회는 ▲안전·환경·복지 ▲일자리·산업·에너지 ▲농·수산 ▲관광·문화 등 4개 분과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공동 위원장은 식견과 덕망이 높은 최일 동신대학교 총장, 박민서 목포대학교 총장,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이 맡았다. 위원은 학계, 사회단체, 현장 전문가, 청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분과별로 전남도 실·국장과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게 된다. 논의된 내용을 차질 없이 실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현장 토론회를 전남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광주 근교권, 4개 권역별로 개최해 도민의 소중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박종배 기자

## 이용섭시장 “광주는 왜 대선후보 없나”

지방선거 날선 소회 “일당독점구도 장기화 낮은 폐해 측면”

기회가 낳은 폐해에  
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광주에서 민주당이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들끼리 정치하는 ‘끼리끼리 정치문화’를 혁파하고, 계파 연고 중심의 정실 공천을 균형화할 수 있는 혁신조치가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폐쇄와 관련해 민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자신이 경선에서 낙마한 뒤 복잡한 심경도 물어나는 듯하다.

이 시장은 또 6·1 지방선거 이를 날인 2일 페이스북에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낙선자들에게 위로의 말로 남겼다.

그는 힘들 때면 종종 펴올리던 8자성어, ‘천장여지 필선 고지(天將與之 必先苦之)’를 인용하며 ‘살아온 날을 되돌아 보면 한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나 사건들이 훗날 오히려 복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조언했다.

/김도기 기자



‘인권변호사’ 고(故) 홍남순 변호사 화순 생가 복원 7일 오전 화순군 도곡면에서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복원 기념행사가 열렸다. /전남도 제공

## ‘인권변호사’ 고(故) 홍남순 변호사 화순 생가 복원

김영록 지사 “시대의 의인…인권정신 계승” 다짐

‘재야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평가 받고 있는 인권변호사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전남 화순 생가가 복원됐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순군 도곡면에서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복원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유족인 흥기훈 전 국회의원, 박석무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구종곤 화순군수, 정대철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

문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홍남순 변호사는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 변론, 양심수 변론 활동을 펼친 인권변호사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광주시민 학살에 항의하는 행진을 펼쳐내린 수괴의로 1년 7개월의 육고를 치르며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9년

부터 군비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생가 복원 사업을 추진, 2020년 사업이 완공됐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달에야 열렸다.

김영록 지사는 기념사에서 “대한 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시대의 의인’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그 정신은 우리 모두가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사명”이라며 “도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 DJ센터-광주MBC-글로벌비즈마켓 11월 주류페스타 공동 추진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가 광주 MBC, 글로벌비즈마켓과 ‘광주주류페스타’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22 광주주류페스타는 오는 11 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첫걸식에는 김상묵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김나곤 광주MBC 사장, 이승호 글로벌비즈마켓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권형안 기자



내 삶이 행복한 광산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30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